

뉴비즈니스



(주)솔루윈 이도상 부사장

2008년은 목표 달성을 통한 성장수립의 해

국내 프리프레스 업계를 위한 전문 이미징 솔루션을 공급해온 솔루윈이 2008년 새해를 맞아 사업 분야의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솔루윈은 그 동안 영국 FFEI(Fujifilm Electronic Imaging Co.)와 제품 및 서비스 독점 공급 협약을 체결, 스캐너로부터 시작해 CIP와 워크플로우에 이르기까지 프리프레스 전 공정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이제는 여기에 더해 후지필름세리콜의 UV 잉크젯 평판 인쇄기와 후가공 장비, 그리고 포장용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프리프레스 시장 이외에도 POP시장과 패키징 시장까지 그 사업 범주의 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로 인쇄업계에 입문한지 30년을 맞게 된 이도상 부사장은 솔루윈의 신규사업분야 개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며 그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방향과 드루파2008을 전환점으로 한 세계 인쇄산업의 변화, 그리고 국내 인쇄산업이 문화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취재_글_안혜정기자

2008년 1월부터 솔루션은 후지필름세리콜의 UV 잉크젯 평판 인쇄기인 어큐티(Acuity)를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하게 됩니다. 기존 프리프레스 분야와는 다른 신규 사업 분야로의 진출이라 볼 수 있는데 신년 들어 솔루션에서 추구하는 사업 방향은 무엇입니까?

어큐티의 국내 시장 공급은 앞으로 솔루션에서 진행해 나갈 후가공 및 패키징 솔루션 공급과 병합되어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 솔루션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고객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고객들의 기대에 부합, 마켓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의 프리프레스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사인 및 패키징등의 신규 사업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신년에는 사업 다각화와 성장을 목표로 사업 전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POP 사인 시장은 다양한 잉크젯 제품들로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솔루션에서 어큐티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어큐티는 경쟁이 치열한 POP시장은 물론 건축시장 등 여러 다른 산업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라 판단했기에 도입공급을 결정했습니다. 어큐티가 갖고 있는 장점은 첫째는 제품 가격이 저렴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둘째는 최상급의 품질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심플하면서도 친환경적이며 제품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과 생산성을 갖고 있어 기존 잉크젯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상업인쇄시장에서 다른 신규 사업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고객들에게 공급하기 이전에 업체의 자체적인 노하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솔루션에서는 제품에 대한 제반 기술과 운영 및 사용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습득한 후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어큐티의 장점에 솔루션의 철저한 사후 관리 역량이 어우러져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더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또한 정교히 다듬어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을 위한 신규사업 컨설팅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 데모룸을 운영하거나 하나의 지정 업체와 비즈니스 협약을 맺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는 최소 10대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지필름세리콜에서는 올 UV잉크젯 디지털 인쇄기 후속 모델을 2종 더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어큐티 제품과는 용도가 다른 제품들이지만 이들 제품 또한 솔루션에서 공급할 것입니다.

부사장님께서서는 국내외 인쇄산업계에서 프리프레스 시장의 전문가로 명성을 얻고 계십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드루파 2008을 전환점으로 세계 인쇄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리라 예측하십니까?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이미 4년 전부터 드루파2008은 디지털 인쇄기술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 예측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드루파2008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인쇄가 점진적으로 보편화되리라 봅니다. 디지털 기술은 현재 토너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잉크젯 방식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잉크젯 방식의 디지털 기술은 인쇄되는 사이즈에 있어 자유로우며 인쇄 질감이 오프셋 인쇄와 비슷해 품질 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성 문제와 후가공 처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너 방식 또한 고유의 편리성과 장점이 있기에 POD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며 한동안은 잉크젯 기술과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드루파2008에서는 이들 디지털 장비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잉크가 선보이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루파를 계기로 CtP시장은 점차 쇠퇴해 나가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CtP시장이 2, 3년은 더 성장해 나갈 것이라 기대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본다면 도입의 포화 단계를 지나 쇠퇴의 시기를 맞으리라 봅니다.

미국의 디지털인쇄시장 전문가인 프랭크 로마노씨는 2015년 디지털 인쇄시장의 규모가 오프셋 인쇄시장을 앞서 나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인쇄산업시장 변화에 대해 많은 예측을 해왔으며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부터 드루파에 참가하고 있지만 실제



(주)슬루원 이도상 부사장

적인 시장 변화는 항상 예측한 것보다 5년 내지 10년 정도 늦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인쇄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는 예상만큼 빠르게 진행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을 살펴 본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프셋 인쇄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변화가 빠르게 전개된다 해도 기존 오프셋 인쇄기 절대량은 그대로 시장에 남게 될 것이며 작업 물량 또한 양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지속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현동에서는 디지털 인쇄로 소화해야 할 분량의 소량 인쇄물들이 디지털 인쇄보다 훨씬 싸게 인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인쇄가 빠르게 확산된다 할지라도 오프셋 인쇄가 차지하고 있는 몫을 쉽게 석권하기는 힘들 것이라 봅니다.

디지털 인쇄기술을 비롯해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공정의 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오프셋시장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감지는 더딘 듯 합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변화하는 시장가운데 성공적인 인쇄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쇄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공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둘째는 이를 위한 자본 신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높이고 셋째로는 고유의 기술적 노하우를 갖추는 일입니다. 총무로의 출력소들을 예로 들자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중소 업체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소

멸돼 왔습니다. 인쇄사 역시 출력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지식층을 흡수해 새로운 기술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달 전 덴마크의 인쇄사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인구 700만에 실업률 제로를 자랑하는 선진국입니다. 노동비가 가장 비싼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에 인쇄사의 제조 공정은 철저하게 자동화가 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동화가 정착되면 이를 통해 얻은 경영 투자 이익을 다른 곳에 재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인쇄산업이 향후 문화사업으로 이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경영면에 있어 효율적 자본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원가절감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품질 개선과 서비스 사업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져야 합니다. 강화된 기술력과 워크플로우를 이용한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이를 확립해 나갈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는 친환경적인 작업환경 구축입니다. 선진국으로 들어설수록 싫건 좋건 환경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를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유럽 FFEI에서는 지난해부터 스캐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사용량의 감소도 원인이 됐지만 스캐너 내부에 들어가는 보드가 납을 이용해 제작되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도 좋으나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환경 규제와 제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해 소망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업무적으로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다음 단계에 오를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 유지입니다. 이제껏 평생 몸이 아파 출근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실함으로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모쪼록 인쇄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lan Leung

후지필름세리콜 동북아시아 영업이사

후지필름세리콜 동북아시아지역 영업 담당 이사인 알란 랭씨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6개국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는 올 1월부터 국내 프리프레스 업계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 후지필름세리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한국의 POP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후지필름세리콜이란 어떤 회사인가?

세리콜이 2005년 2월 후지필름에 인수, 합병되며 자회사로 설립된 회사다. 후지필름세리콜의 전신인 세리콜은 영국 기업으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30년 전에 이미 UV잉크제조기술을 보유했을 만큼 뛰어난 연구력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후지필름세리콜에서는 기존의 세리콜에서 하던 스크린인쇄용 잉크 및 내로우 웹과 디지털 인쇄용 잉크 제조는 물론 'more than Ink Solutions'라는 모토가 시사하듯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 잉크젯 인쇄기까지 생산, 공급하고 있다.

후지필름은 그 동안 필름 공급 업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CIP와 워크플로우 솔루션을 비롯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시도함으로써 인쇄 산업계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잉크젯 관련 사업 또한 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후지필름은 지난 4월 고품질의 와이드포맷 디지털 그래픽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 선언했으며 이를 통해 후지필름이 지향하는 사업 방향을 분명히 했다. 후지필름세리콜은 모회사인 후지필름의 이러한 사업 방향에 일조, 디지털 인쇄시장에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백분 만족시켜 나갈 것이다.

후지필름은 지난 몇 년 동안 UV잉크 전문 제조였던 세리콜 이외에도 잉크젯 산업 진출을 목표로 세계적인 잉크젯 헤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디메틱스(구 스펙트라)

를 비롯해 염료잉크 제조사인 아베시아 잉크젯(Avecia Inkjet), 그리고 잉크젯 관련 소모품을 제조하는 컬러미(Colomy) 등의 업체를 인수, 합병했다. 이와 동시에 잉크젯 관련 제조 업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통한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으며 자체적인 R&D에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 후지필름은 잉크는 물론,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잉크젯 디지털 시장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개발, 공급함과 동시에 서비스와 기술력 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 시장에서의 리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올 1월부터 한국 시장에서는 솔루션을 통해 후지필름세리콜 제품이 공급, 판매된다고 들었다. 솔루션을 채널로 선택한 이유는?

솔루션은 한국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프리프레스 솔루션 공급 업체다. 후지필름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인쇄산업 시장에서는 뛰어난 영업망과 철저한 사후 서비스로 폭 넓은 소비자 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다. 비단 인쇄산업 시장뿐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까지도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며 파트너사로서 손색없는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후지필름세리콜 제품을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데 큰 기여를 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고대하는 바이다.



UV잉크 사용으로 친환경적 사업 환경 구축

(주)솔루윈 패키징 공정 혁신사업부 장길주 부장

업체들을 방문할 때면 종종 환경 이슈의 심각함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환풍기나 필터링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휘발성 잉크가 증발하며 나오는 독성 물질이 여과 없이 버려져 작업 환경은 물론 주변의 환경까지도 저해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북미나 유럽과 비교해 국내 업체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 이슈는 더욱 대두되며 가시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규제 또한 강화돼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강화되는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이 바로 적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환경규제에 맞도록 작업장의 설비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인쇄사업 환경을 변화시켜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만들기까지는 적잖은 투자가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로 인쇄기 유닛별 필터를 장착하는 일이 수반돼야 하며 환풍기를 설치하고 오물 정화 시설을 갖추는 등 이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존의 솔벤트 잉크와 같이 환경에 유해한 소모품을 수성 UV잉크와 같은 친환경적인 소모품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UV잉크의 경우 솔벤트 잉크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취약성을 보완함은 물론, 내구성이 강하며 사용하는 원단, 즉 소재의 제한이 없고, 사진과 같은 고해상도의 품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

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도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솔루윈에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UV 평판 잉크젯 디지털 인쇄기인 어큐이티는 UV잉크를 사용함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사업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타 제품과 비교해 잉크소모량 또한 적어 1평방미터의 면적을 인쇄할 때 보통 20g정도의 잉크만이 소비된다. 또한 후지필름에서 제공하는 컬러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여기에서 30% 이상의 잉크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

종이 비닐, 타일 등 여러 가지 소재를 소화해내며 소량 다품종을 주로 하는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이나 주택 전시관, 전시 디스플레이 등 모두 접근 가능한 제품이다. 따라서 건축 관련분야가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기존 인쇄업체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업체라면 충분히 이를 틀로 삼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 분석한다. 또한 잉크소모량이 타사 제품과 비교해 월등히 낮아 패덱스킨코스나 타라와 같은 인쇄 편의점이나 기획사 등 볼륨 영업이 필요로 한 업체에도 적합한 제품이다.

솔루윈에서는 앞으로도 5년, 10년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단순한 단품 판매를 지양하고 고객들에게 작업 환경 가동력을 높이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 부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함으로 성장 동력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진해 나가고 있다. 🌱

Acuity HD 2504



와이드포맷 UV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제공하는 Acuity HD 2504는 미세한 디테일이나 고해상도의 이미지 구현에 적합한 UV잉크젯 평판 인쇄기로 소재에 관계 없이 다양한 미디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POP(point of purchase) 인쇄물에 적합하며 근거리에서 볼 때도 고해상도로 인쇄되어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해상도의 UV 평판 잉크젯 인쇄 기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오세의 OEM제품이며 후지필름에서 인수한 디메틱스(구 스펙트라) 잉크젯 헤드를 사용하고 있다.

Acuity HD 2504의 특성

- 진공 테이블이 장착된 UV 평판인쇄기로 특허 받은 그레이 스케일 UV잉크젯 헤드 사용
- 6-42 피코리터(picolitre- 10^{-12} Liter, 즉 1조 분의 1리터에 해당하는 단위)에 이르는 가변 도트 이미징 기술을 사용하며 각 컬러 당 2개의 헤드를 사용하는 4색(CMYK) 지원
- 기존의 컨벤셔널 인쇄 해상도인 1,440dpi 또는 이보다 높은 해상도 구현
- 생산속도는 생산모드로 시간당 16평방미터, 품질모드로는 시간당 12평방미터, 미세한 디테일까지 살려 표현하는 파인아트모드로는 시간당 8평방미터
- 인쇄 포맷 사이즈는 1.25m(너비) × 2.5m(길이)이며 0.5cm의 완전 블리드(bleed- 옥외광고판이나 인쇄물의 여백을 남기지 않고 잘라내는 것)인쇄 가능
- 인쇄 가능한 최대 미디어 두께는 48mm
- ONYX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 버전 7.0이상의 RIP사용
- 후지필름 세리콜의 UV경화 잉크인 유비젯코(Uvijet KO) 시리즈 전용 잉크 사용
- 전력사양은 200에서 240VAC, 단상, 16A, 100 BASE-T

유비젯(Uvijet) 잉크

후지필름세리콜의 수십 년 UV잉크화학 기술이 반영돼 탄생한 UV잉크로 고유의 마이크로-V 초 미세 분산 기술이 사용되었다.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컬러를 구현하며 내구성이 강하고 넓은 컬러 가뭇을 갖고 있다.